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2027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1(2)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기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단원인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기」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나요? 말하기 단원이라 쉬울 줄 알았는데 이론이 많아서 걱정돼요.

이번 단원에서는 예시 대화문을 제시하고 대화 참여자가 어떤 대화의 원리를 지키고 있는지, 혹은 어겼는지를 분석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단다. 특히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에 속하는 **세부 격률들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



그렇다면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각 원리와 격률의 정의, 그리고 예시를 짝지어서 파악해 두어야 하겠네요.

맞아.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첫째, 협력의 원리**야. 대화의 목적에 맞게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건데, 양, 질, 관련성, 태도의 4가지 **격률**이 있어. 예를 들면 여행지를 추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배탈 난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 이건 대화 화제와 관련 없는 말을 했으니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야.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공손성의 원리' 부분이 너무 헷갈려요. 특히 '요령의 격률'이랑 '관용의 격률'이 뭐가 다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둘 다 남을 배려하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야.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살펴봐야 해.

요령의 격률(상대방 기준)은 상대방에게 부담은 줄이고, 이익은 높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떡볶이 먹어”라고 명령하는 대신 “혹시 저녁에 떡볶이 먹지 않을래?”라고 물어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지.

관용의 격률(나 기준)은 나에게 부담은 높이고(내 탓으로 돌리고), 이익은 줄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상대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릴 때 “안 들려. 다시 말해.”라고 하는 대신 “내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말해줄 수 있니?”라고 내 탓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너 이거 해!”라고 안 하고 “해줄 수 있니?”라고 묻는 건 상대를 배려했으니 ‘요령의 격률’이고, 내 탓으로 돌리면 ‘관용의 격률’인 거네요? 이제 이해됐어요.

정확해! 그리고 담화 관습 부분도 시험에 잘 나와. 옛날에는 ‘침묵은 금이다’처럼 말을 아끼는 게 미덕이었다면, 오늘날은 부모-자식 간에도 친구처럼 대화하거나 직장에서 ‘○○님’ 같은 수평적 호칭을 쓰는 문화로 바뀌었지. 이런 변화의 긍정적 측면(소통 원활)과 부정적 측면(예의/위계 문제)을 비교하는 문제도 꼭 챙겨봐야 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 부분은요?

매체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나와. 인쇄 매체(신뢰성 높음, 느낌), 영상 매체(현장감, 빠름), 인터넷 매체(쌍방향, 생산 쉬움)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으면 돼. 특히 인터넷 매체는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



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2027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1(2)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기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활동① 대화의 원리 이해하기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활동(‘대화’의 개념)이다.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지켜야 할 원칙(‘대화의 원리’의 개념)을 대화의 원리라고 한다. 대화의 원리에는 **협력의 원리**(양, 질, 관련성, 태도의 격률이 이에 속함.), **공손성의 원리**(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를 격률이 이에 속함.), 체면 유지의 원리 등이 있다.

1. 협력의 원리를 고려하여, 다음 대화에서 두 학생의 말에 나타난 문제점(제시된 대화에 해당하는 대화의 원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학생 2와 학생 3이 고려해야 할 대화의 원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을 파악해 보자.

학생 1 여행지를 홍보하는 글을 쓰기 전에 자신의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학생 1이 학생 2와 학생 3에게 물어본 내용)

학생 2 나는 여행만 가면 배탈이 나더라. 그래서 꼭 숙소의 화장실이 깨끗한지 확인해.(대화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 →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어김.)

학생 3 [중학생 때 갔던 단양(여행지 ①) 고수 동굴을 추천하고 싶어. 정말 아름다웠거든. 참, 초등학교 때 갔던 답양(여행지 ②)의 대나무 숲도 휴식하기에 최상의 장소였어. 그리고 보니 유치원에서 갔던 양양(여행지 ③)의 바닷가도 좋았었네. 음 또...]([]: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을 어김.)

▣ 협력의 원리

화자와 청자가 원활하게 대화하려면 대화의 목적이나 상대의 요구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화자와 청자가 대화의 상황에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를 협력의 원리라고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양: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질: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해야 한다.(‘질의 격률은 명확한 근거를 들어 진실된 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관련성: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 화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한다.
- 태도: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명료하게 말해야 한다.(태도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예시로 ‘수현이가 조장이니까 수현이가 발표해야지. 그런데 그냥 잘하는 사람이 발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와 같이 들 수 있음.)

문제점: _____

(예시 답안: 관련성을 지키지 않았다. 첫 번째 장면의 친구가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를 이야기해 보자고 했는데 여행지 추천과 관련 없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 적절한 양으로 말하지 않았다. 첫 번째 장면의 친구가 여행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고 했는데 너무 많은 여행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 공손성의 원리(예시 대화문을 제시하고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 발화 내용을 옳게 분석한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공손성의 원리는 **화자와 청자가 대화할 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는 것**(‘공손성의 원리’의 개념)을 말한다. 공손성의 원리를 잘 지키면 **나와 상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공손성의 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상대와 대화할 때 ‘이익과 부담’, ‘칭찬과 비방’, ‘의견이 같음과 다름’의 상황에서 지켜야 할 **공손성의 원리**(공손성의 원리 중 해당하는 격률이 드러나도록 담화 자료를 수정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격률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는 다음과 같다.

이런 말은 늘려요.	이런 말은 줄여요.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말 (요령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말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말 (관용의 격률. ‘관용의 격률은 화자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표현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말
상대를 칭찬하는 말 (찬동의 격률. ‘찬동의 격률은 상대방과 의견이 같음을 드러내는 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와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말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 (겸양의 격률)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말
상대와 의견이 같음을 드러내는 말 (동의의 격률)	상대와 의견이 다름을 드러내는 말 (상대와 의견이 다르다면 차이점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상대의 말에 먼저 공감을 표현한 뒤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음.)

(위의 표를 제시한 후 공손성의 원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 공손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다음 대화를 살펴보자.

(1) 다음 대화에서 두 학생이 공손성의 원리에 맞게 말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자.

민주 지호야, 모둠 활동에서 **내가 자료를 잘 찾아 준 덕분에**(상대를 칭찬하는 말 - 찬동의 격률. ‘**민주는 지호를 칭찬하는 말을 하며 찬동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

지호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그렇지만 **자료를 준비한 나보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 내가 더 고생이 많았지.**(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 - 겸양의 격률. ‘**지호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며 겸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예시 답안: 공손성의 원리에 맞게 대화를 하고 있다. 민주가 지호를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고, 지호는 공손하게 표현하여 대화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 ‘**민주와 지호는 모두 상대와 의견이 같음을 드러내며 동의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와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2) 다음 대화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찾고, 이를 공손성의 원리에 맞게 고쳐 보자. (제시된 대화의 내용을 공손성의 원리에 맞는 표현으로 고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누나 부모님도 외출하셨으니 오늘 저녁은 편하게 시켜 먹자. 메뉴는 떡볶이로 확정!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상대방의 부담을 주는 말을 줄이는 요령의 격률을 어김.)

(예시 답안: 혹시 저녁에 떡볶이 먹지 않을래? / 질문하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거나 ‘괜찮다면’, ‘혹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남동생 떡볶이는 정말 질러. 그저께도 먹었잖아. 그냥 밥이나 먹어. (상대와 의견이 다름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있음. 상대와 의견이 다름을 드러내는 말을 줄이는 동의의 격률을 어김.)

(예시 답안: 떡볶이는 언제 먹어도 맛있지. 그런데 그저께 먹었으니까 괜찮다면 오늘은 밥을 먹는 게 어떨까?)

▣ 체면 유지의 원리 (상대의 체면을 떨어뜨리지 않고, 존중하며 말해야 한다는 원리)

체면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내세우고 보호받고자 하는 공개적인 이미지(체면의 개념)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립적, 독립적 주체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적극적 체면의 개념)를 적극적 체면이라고 하고,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려는 욕구(소극적 체면의 개념)를 소극적 체면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화할 때 상대의 소극적 체면은 건드리지 않고 적극적 체면을 세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 (체면을 유지하면서 대화하는 방법. ‘체면 유지의 원리는 개인을 존중하기 위한 원리로서, 소극적 체면보다는 적극적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와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소극적 체면을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 소극적 체면보다 적극적 체면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야! 너 책 정리 처음 하니? (상대의 체면을 떨어뜨리는 말) 책에 붙은 청구 기호 좀 보면서 해. (명령형)

㉡ 진수야, 책에 붙은 청구 기호를 보면 책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책 정리하는 방법을 간접적인 표현으로 전달함.) 할 수 있지? (의문형)

㉠과 같이 상대에게 명령하듯이 말하면 (체면을 떨어뜨리는 방법) 상대의 체면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처럼 상대의 체면을 존중하며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3. 체면 유지의 원리를 고려하여, 다음 대화에서 영지와 수정이의 말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보자.

상황: 학급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친구의 실수로 ‘빛나라’만 대화방에 참여하지 못한 채 ‘준영’의 깜짝 생일 파티 준비가 시작된다. 준영이의 생일날, 아무것도 모르는 빛나라가 준영이보다 먼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생일 파티는 실패하게 된다.

[영지 최빛나라 때문에 준영이 들어오는 반응을 못 찍었네. (빛나라의 체면을 떨어뜨리는 발화 ①)

수정 눈치 없게 빛나라가 들어와서. (빛나라의 체면을 떨어뜨리는 발화 ②)] ([]: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음.

영지와 수정이 빛나라에게 쓴 사과 편지를 제시하고 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준영 (당황하는 빛나라를 의식하며) 괜찮아.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 신수지, 《하트가 빛나는 순간》에서

활동 ② **담화 관습**(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에서 형성된 듣기·말하기의 방식이나 습관, 태도를 말함. ‘담화 관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내세우고 보호받고자 하는 공개적인 이미지이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을 고려하여 말하기

1. 다음 자료에 나타난 **옛사람들의 담화 관습**(옛사람들의 담화 관습과 오늘날의 담화 관습은 각각 다른 시대적 배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모두 말하기 방식에 있어 관계의 분위기와 감정 조절을 중시하는 담화 관습을 공유한다는 틀린 내용의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p>㉠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① 집안에 잔말이 많으면 살림이 잘 안된다는 말. ② 입으로는 그럴 듯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좋지 못하다는 말. ‘말을 함에 있어서 절제와 신중함을 중시하는 담화 관습이 드러난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p> <p>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말.)</p> <p style="text-align: right;">- 속담</p>
<p>㉡ 한 선비가 길을 가다가 밭갈이하는 늙은 농부를 만나 물었다. “저 소들 가운데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일을 멈추고 선비에게 와서 귓속말로 “검은 소가 힘은 세지만, 일은 누렁소가 더 잘합니다.”라고 속삭였다. 이에 선비가 “비밀도 아닌 말을 왜 귓속말로 합니까?”라고 물었다. 농부는 “아무리 짐승일지라도 비교하는 말이 귀에 들어가면 좋을리가 있겠습니까?”(타인과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 옛이야기</p>
<p>㉢ 말은 황금처럼 아끼고 자취는 옥같이 감추어라. 깊이 침묵하고 고요히 가라앉혀 꾸밈이나 속임과는 접촉하지 말라. 빛남을 가슴속에 감추어 두라. 오래되면 밖으로 빛나리라.</p> <p style="text-align: right;">- 이덕무, <회잡>에서</p>

(1) ㉠~㉢에 나타난 옛사람들의 담화 관습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 말을 가려서 하라. ㉡: 타인과 비교하는 말은 하지 마라. ㉢: 스스로 뽐내는 말은 감추어라.)

* 그 밖의 우리의 전통적 담화 관습

- 돌려 말하기: 직설적으로 표현했을 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함.
- 겸양의 말하기: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뽐내는 말은 줄여서 자신을 낮추고, 예의를 갖추어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높임.
- 언행일치의 말하기: 말과 행동, 또는 말과 실체가 부합하지 않는 언어 사용을 경계함.

(2) (1)에서 말한 담화 관습을 오늘날에 어떻게 수용하면 좋을지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2. 다음 자료를 읽고, 오늘날의 담화 관습을 성찰해 보자.

㉓ 엄마와 아들이 다정하게 걷는다.

아들 가, 엄마. 차 시간 늦어.(엄마에게 반말을 하는 모습. '부모-자식 간에도 위계적 언어 사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친근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을 보여 준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엄마 응, 조금만 더 가고. (아들의 앞머리를 만지며) 아이, 너 머리 이렇게 좀 하라니까. 이마 좀 보이게.

아들 아이, 내가 할게.

엄마 아니야, 보여야 예뻐.

아들 내가, 내가 한다니까.

같은 반 친구와 친구 엄마를 마주친다.

아들 (친구 엄마를 보며) **안녕하세요.**(친구 어머니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모습)

엄마 아, 너네 반? (아들 친구를 보며) 안녕, 난 준우 엄마야.

- 윤경아, 《열여덟의 순간》에서

㉔ ○○ 회사가 **수평 호칭을 도입**(수직적 질서를 상징하는 직급과 직책을 없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 회사 직원끼리는 2017년부터 '이름 + 님' 또는 '프로님'이라고 부르는 **수평 호칭을 사용해 왔다.**(상호 존중의 문화. **체면 유지의 원리의 관점에서 해당 문화의 목적을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난해는 특정 부서를 중심으로 하여 '**상호**('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 모두'를 뜻함.) 존댓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처럼 직원 사이에서 활용했던 수평적 호칭 문화를 최근 경영진과 임원까지 대폭 확대한 셈이다. ○○ 회사에 따르면 앞으로는 '팀장님', '그룹장님' 등 직책명도 쓸 수 없다. ○○ 회사는 "상호 존중의 철학 기반, 수평 호칭 문화 정착을 위해 경영진, 임직원 모두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2023. 0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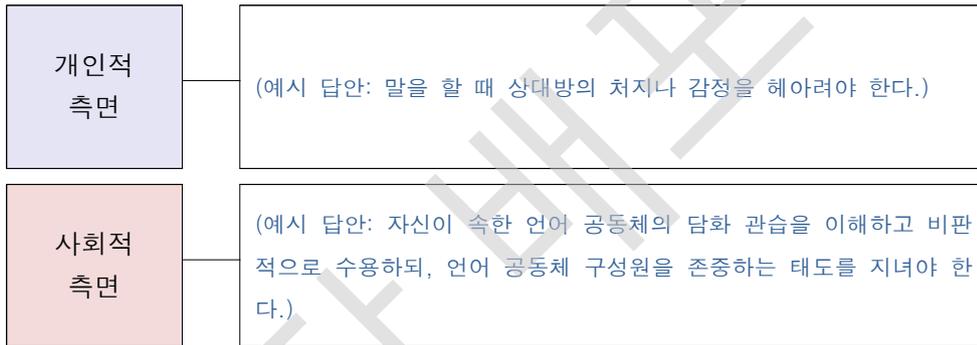
(1) ㉓와 ㉔에 나타난 오늘날의 담화 관습을 파악해 보자.

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자식이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다. • (예시 답안: 친근한 관계라고 느끼는 자신의 부모님께서는 반말하면서 친구의 부모님에게는 존댓말을 하고 있다.)
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답안: 상호 존댓말을 하며 수평 호칭을 사용한다. / 기존의 상하 관계가 뚜렷하고 수직적 질서가 있었던 직장에서도 상호 존중의 담화 관습을 형성하려고 한다.)

(2) (1)에서 파악한 **담화 관습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담화 관습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내용을 선지로 제시하고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을 분석해 보자.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	(예시 답안: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하기 때문에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긴밀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예시 답안: 부모와 자식 간에 격식이 없어져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가 어렵고 부모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
㉡	(예시 답안: 상호 존중의 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조직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뀔 수 있고, 누구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 편하고 쉽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예시 답안: 직급과 관계없이 수평적 호칭을 사용하게 되면 조직의 위계가 무너지게 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3) (1)과 (2)를 참고하여, **오늘날 담화 관습을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옛사람들의 담화 관습과 오늘날의 담화 관습이 지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함.)을 생각해 보자.



적용 창의 지문 분석

▣ **매체 특성 파악하기**(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소통 맥락, 수용자 특성, 매체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함.)

[① 인쇄 매체

- 문자 언어와 사진 등 **시각적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인쇄 매체의 특징 ①)함.
- **정보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은 편이나, 정보 제공 속도가 느린 편임.**(인쇄 매체의 특징 ②. '인쇄 매체는 문자 언어, 그림, 사진 등 시각적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보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은 편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책, 신문, 잡지 등이 있음.

② 영상 매체

-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영상, 음향 등 **다양한 시청각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영상 매체의 특징 ①)함.
- **생생한 현장 화면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정보 제공 속도가 빠른 편임.**(영상 매체의 특징 ②)
- 텔레비전 방송, 영화 등이 있음.

③ 인터넷 매체 (쌍방향 매체)

-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영상, 음향, 사진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함. (인터넷 매체의 특징 ①. '영상 매체는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영상, 음향, 사진,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한다.'와 같은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속도가 빠른 편임. (인터넷 매체의 특징 ②. '인터넷 매체는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속도가 빠른 편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있음.

매체 자료 제작 단계에서는 매체 언어 사용 윤리를 이해해야 함. 표절이나 불법 복제 등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타인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2027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1(2)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기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대화와 대화의 원리 개념

대화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활동
대화의 원리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지켜야 할 원칙 - 협력의 원리 - 공손성의 원리 - 체면 유지의 원리

2. 협력의 원리

협력의 원리	
대화의 목적이나 상대의 요구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대화하는 것	
양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함.
질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해야 함.
관련성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 화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함.
태도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명료하게 말해야 함.

3. 공손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화자와 청자가 대화할 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는 것	
오령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줄이고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늘리기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줄이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늘리기
찬동의 격률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줄이고 상대를 칭찬하는 말을 늘리기
겸양의 격률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말을 줄이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을 늘리기
동의를 격률	상대와 의견이 다름을 드러내는 말을 줄이고 상대와 의견이 같음을 드러내는 말을 늘리기

4. 체면 유지의 원리

체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내세우고 보호받고자 하는 공개적인 이미지
적극적 체면	다른 사람에게 자립적, 독립적 주체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소극적 체면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려는 욕구
- 상대의 소극적 체면은 건드리지 않고 적극적 체면을 세워 주어야 함. - 상대의 체면을 존중하며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음.	

5. 우리의 전통적 담화 관습

말을 [가려서] 하기
타인과 [비교]하는 말 하지 않기
스스로 [뺨내는] 말 감추기
[돌려] 말하기
[겸양의] 말하기
[언행일치의] 말하기

나무아카데미 배포금지

TEST 1단계

1. 대화와 대화의 원리 개념

대화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며 서로를 이□하는 활동
대화의 원리	대화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지켜야 할 원칙 - 협력의 원리 - 공손성의 원리 - 체면 유지의 원리

2. 협력의 원리

협력의 원리	
대화의 목□이나 상대의 요□에 맞게 서로 □력하여 대화하는 것	
양	대화의 목적에 □□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함.
질	□□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해야 함.
관련성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 화제와 관□된 것을 말해야 함.
태도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료하게 말해야 함.

3. 공손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화자와 청자가 대화할 때 서로 존□하고 배□하여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는 것	
요□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줄이고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늘리기
관□의 격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줄이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늘리기
찬□의 격률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줄이고 상대를 칭찬하는 말을 늘리기
겸□의 격률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말을 줄이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을 늘리기
동□의 격률	상대와 의견이 다름을 드러내는 말을 줄이고 상대와 의견이 같음을 드러내는 말을 늘리기

4. 체면 유지의 원리

체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내세우고 보호받고자 하는 □□적인 □미지
적극적 체면	다른 사람에게 자립적, 독립적 주체로서 인□받고자 하는 욕구
소극적 체면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로 선택하려는 욕구
- 상대의 □□적 체면은 건드리지 않고 □□적 체면을 세워 주어야 함. - 상대의 □면을 존중하며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음.	

5. 우리의 전통적 담화 관습

말을 가□서 하기
타인과 비□하는 말 하지 않기
스스로 □내는 말 감추기
돌□ 말하기
겸□의 말하기
언□□치의 말하기

목민배포공서

TEST 2단계

1. 대화와 대화의 원리 개념

대화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며 서로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는 활동
대화의 원리	대화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게 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지켜야 할 원칙 - 협력의 원리 - 공손성의 원리 - 체면 유지의 원리

2. 협력의 원리

협력의 원리	
대화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나 상대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에 맞게 서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여 대화하는 것	
양	대화의 목적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함.
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해야 함.
관련성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 화제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된 것을 말해야 함.
태도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게 말해야 함.

3. 공손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화자와 청자가 대화할 때 서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여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줄이고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늘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 격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줄이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늘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 격률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줄이고 상대를 칭찬하는 말을 늘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 격률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말을 줄이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을 늘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 격률	상대와 의견이 다를 때 드러내는 말을 줄이고 상대와 의견이 같음을 드러내는 말을 늘리기

4. 체면 유지의 원리

체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내세우고 보호받고자 하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체면	다른 사람에게 자립적, 독립적 주체로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받고자 하는 욕구
소극적 체면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선택하려는 욕구
- 상대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체면은 건드리지 않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체면을 세워 주어야 함.	
- 상대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 존중하며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음.	

5. 우리의 전통적 담화 관습

말을 <input type="text" value="ㄱ"/> <input type="text" value="ㄹ"/> <input type="text" value="ㅅ"/> 하기
타인과 <input type="text" value="ㅂ"/> <input type="text" value="ㄱ"/> 하는 말 하지 않기
스스로 <input type="text" value="ㅁ"/> <input type="text" value="ㄴ"/> <input type="text" value="ㄴ"/> 말 감추기
<input type="text" value="ㄷ"/> <input type="text" value="ㄹ"/> 말하기
<input type="text" value="ㄱ"/> <input type="text" value="ㅇ"/> 의 말하기
<input type="text" value="ㅇ"/> <input type="text" value="ㅎ"/> <input type="text" value="ㅇ"/> <input type="text" value="ㅈ"/> 의 말하기

목민배포공서

TEST 3단계

1. 대화와 대화의 원리 개념

대화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며 서로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는 활동
대화의 원리	대화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게 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지켜야 할 원칙 - 협력의 원리 - 공손성의 원리 - 체면 유지의 원리

2. 협력의 원리

협력의 원리	
대화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나 상대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에 맞게 서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여 대화하는 것	
양	대화의 목적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함.
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해야 함.
관련성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 화제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된 것을 말해야 함.
태도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게 말해야 함.

3. 공손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화자와 청자가 대화할 때 서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여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줄이고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늘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 격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줄이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늘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 격률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줄이고 상대를 칭찬하는 말을 늘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 격률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말을 줄이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을 늘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 격률	상대와 의견이 다를 때 드러내는 말을 줄이고 상대와 의견이 같음을 드러내는 말을 늘리기

4. 체면 유지의 원리

체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내세우고 보호받고자 하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체면	다른 사람에게 자립적, 독립적 주체로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받고자 하는 욕구
소극적 체면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선택하려는 욕구
- 상대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체면은 건드리지 않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체면을 세워 주어야 함.	
- 상대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 존중하며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음.	

5. 우리의 전통적 담화 관습

말을 □□□ 하기
타인과 □□하는 말 하지 않기
스스로 □□□ 말 감추기
□□ 말하기
□□의 말하기
□□□□의 말하기

목민배포공서

TEST 4단계

1. 대화와 대화의 원리 개념

대화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며 서로를 ___하는 활동
대화의 원리	대화를 ___하게 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지켜야 할 원칙 - 협력의 원리 - 공손성의 원리 - 체면 유지의 원리

2. 협력의 원리

협력의 원리	
대화의 ___이나 상대의 ___에 맞게 서로 ___하여 대화하는 것	
양	대화의 목적에 ___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함.
질	___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해야 함.
관련성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 화제와 ___된 것을 말해야 함.
태도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___하게 말해야 함.

3. 공손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화자와 청자가 대화할 때 서로 ___하고 ___하여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는 것	
___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줄이고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늘리기
___의 격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줄이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늘리기
___의 격률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줄이고 상대를 칭찬하는 말을 늘리기
___의 격률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말을 줄이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을 늘리기
___의 격률	상대와 의견이 다를 때 드러내는 말을 줄이고 상대와 의견이 같음을 드러내는 말을 늘리기

4. 체면 유지의 원리

체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내세우고 보호받고자 하는 ___인 ___
적극적 체면	다른 사람에게 자립적, 독립적 주체로서 ___받고자 하는 욕구
소극적 체면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___ 선택하려는 욕구
- 상대의 ___ 체면은 건드리지 않고 ___ 체면을 세워 주어야 함.	
- 상대의 ___을 존중하며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음.	

5. 우리의 전통적 담화 관습

말을 _____ 하기
타인과 _____ 하는 말 하지 않기
스스로 _____ 말 감추기
_____ 말하기
_____의 말하기
_____의 말하기

6.

목민배포공서

O / X 문제

【1~20】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기」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이다. (O / X)

2. 대화의 원리에는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등이 있다. (O / X)

3. 협력의 원리 중 '질'은 타당한 근거를 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O / X)

4. 친구가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를 이야기해 보자고 했을 때, '숙소의 화장실이 깨끗한지 확인한다.'고 말하는 것은 협력의 원리 중 '태도'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O / X)

5.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면 나와 상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줄일 수 있다. (O / X)

6. 모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내세우고 혼자 간직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체면'이라고 한다. (O / X)

7.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말을 삼가라는 의미이다. (O / X)

8. 말과 실체가 부합하지 않는 언어 사용을 경계하는 것을 언행일치의 말하기라고 한다. (O / X)

9. 수평 호칭을 도입한 회사의 경우, 조직의 위계가 무너지게 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O / X)

10. 수용자가 정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는 매체는 인터넷 매체이다. (O / X)

1. X 2. O 3. O 4. X 5. O 6. X 7. O 8. O
9. O 10. O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2027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1(2)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기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활동① 대화의 원리 이해하기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지켜야 할 원칙을 대화의 원리라고 한다. 대화의 원리에는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등이 있다.

1. 협력의 원리를 고려하여, 다음 대화에서 두 학생의 말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보자.

학생 1 여행지를 홍보하는 글을 쓰기 전에 자신의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

학생 2 나는 여행만 가면 배탈이 나더라. 그래서 꼭 숙소의 화장실이 깨끗한지 확인해.

학생 3 중학생 때 갔던 단양 고수 동굴을 추천하고 싶어. 정말 아름다웠거든. 참, 초등학교 때 갔던 담양의 대나무 숲도 휴식하기에 최상의 장소였어. 그리고 보니 유치원에서 갔던 양양의 바닷가도 좋았었네. 음 또...

▣ 협력의 원리

화자와 청자가 원활하게 대화하려면 대화의 목적이나 상대의 요구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협력의 원리라고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양: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질: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해야 한다.
- 관련성: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 화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한다.

- 태도: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명료하게 말해야 한다.

문제점: _____

■ 공손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는 화자와 청자가 대화할 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공손성의 원리를 잘 지키면 나와 상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상대와 대화할 때 ‘이익과 부담’, ‘칭찬과 비방’, ‘의견이 같음과 다름’의 상황에서 지켜야 할 공손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이런 말은 늘려요.	이런 말은 줄여요.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말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말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말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말
상대를 칭찬하는 말	상대를 비방하는 말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말
상대와 의견이 같음을 드러내는 말	상대와 의견이 다름을 드러내는 말

2. 공손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다음 대화를 살펴보자.

(1) 다음 대화에서 두 학생이 공손성의 원리에 맞게 말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자.

민주 지호야, 모듬 활동에서 네가 자료를 잘 찾아 준 덕분에 오늘 발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

지호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그렇지만 자료를 준비한 나보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 네가 더 고생이 많았지.

(2) 다음 대화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찾고, 이를 공손성의 원리에 맞게 고쳐 보자.

누나 부모님도 외출하셨으니 오늘 저녁은 편하게 시켜 먹자. 메뉴는 떡볶이로 확정!

남동생 떡볶이는 정말 질려. 그저께도 먹었잖아. 그냥 밥이나 먹어.

▣ 체면 유지의 원리

체면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내세우고 보호받고자 하는 공개적인 이미지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립적, 독립적 주체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적극적 체면이라고 하고,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려는 욕구를 소극적 체면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화할 때 상대의 소극적 체면은 건드리지 않고 적극적 체면을 세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

㉠ 야! 너 책 정리 처음 하니? 책에 붙은 청구 기호 좀 보면서 해.

㉡ 진수야, 책에 붙은 청구 기호를 보면 책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할 수 있지?

㉠과 같이 상대에게 명령하듯이 말하면 상대의 체면을 떨어트릴 수 있다. 따라서 ㉡처럼 상대의 체면을 존중하며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3. 체면 유지의 원리를 고려하여, 다음 대화에서 영지와 수정이의 말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보자.

상황: 학급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친구의 실수로 ‘빛나라’만 대화방에 참여하지 못한 채 ‘준영’의 깜짝 생일 파티 준비가 시작된다. 준영이의 생일날, 아무것도 모르는 빛나라가 준영이보다 먼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생일 파티는 실패하게 된다.

영지 최빛나라 때문에 준영이 들어오는 반응을 못 찍었네.

수정 눈치 없게 빛나라가 들어와서.

준영 (당황하는 빛나라를 의식하며) 괜찮아.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 신수지, 《하트가 빛나는 순간》에서

활동 ② 담화 관습을 고려하여 말하기

1. 다음 자료에 나타난 옛사람들의 담화 관습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p>㉠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p> <p style="text-align: right;">- 속담</p>
<p>㉡ 한 선비가 길을 가다가 밭갈이하는 늙은 농부를 만나 물었다. “저 소들 가운데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일을 멈추고 선비에게 와서 귓속말로 “검은 소가 힘은 세지만, 일은 누렁소가 더 잘합니다.”라고 속삭였다. 이에 선비가 “비밀도 아닌 말을 왜 귓속말로 합니까?”라고 물었다. 농부는 “아무리 짐승일지라도 비교하는 말이 귀에 들어가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 옛 이야기</p>
<p>㉢ 말은 황금처럼 아끼고 자취는 옥같이 감추어라. 깊이 침묵하고 고요히 가라앉혀 꾸밈이나 속임과는 접촉하지 말라. 빛남을 가슴속에 감추어 두라. 오래되면 밖으로 빛나리라.</p> <p style="text-align: right;">- 이덕무, <회잡>에서</p>

(1) ㉠~㉢에 나타난 옛사람들의 담화 관습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1)에서 말한 담화 관습을 오늘날에 어떻게 수용하면 좋을지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2. 다음 자료를 읽고, 오늘날의 담화 관습을 성찰해 보자.

㉞ 엄마와 아들이 다정하게 걷는다.

아들 가, 엄마. 차 시간 늦어.

엄마 응, 조금만 더 가고. (아들의 앞머리를 만지며) 아이, 너 머리 이렇게 좀 하라니까. 이마 좀 보이게.

아들 아이, 내가 할게.

엄마 아니야, 보여야 예뻐.

아들 내가, 내가 한다니까.

같은 반 친구와 친구 엄마를 마주친다.

아들 (친구 엄마를 보며) 안녕하세요.

엄마 아, 너네 반? (아들 친구를 보며) 안녕, 난 준우 엄마야.

- 윤경아, 《열여덟의 순간》에서

㉟ ○○ 회사가 수평 호칭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 회사 직원끼리는 2017년부터 ‘이름 + 님’ 또는 ‘프로님’이라고 부르는 수평 호칭을 사용해 왔다. 지난해는 특정 부서를 중심으로 하여 ‘상호 존댓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처럼 직원 사이에서 활용했던 수평적 호칭 문화를 최근 경영진과 임원까지 대폭 확대한 셈이다. ○○ 회사에 따르면 앞으로는 ‘팀장 님’, ‘그룹장님’ 등 직책명도 쓸 수 없다. ○○ 회사는 “상호 존중의 철학 기반, 수평 호칭 문화 정착을 위해 경영진, 임직원 모두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2023. 02. 10)

(1) ㉠과 ㉡에 나타난 오늘날의 담화 관습을 파악해 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자식이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 (1)에서 파악한 담화 관습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해 보자.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		
㉡		

(3) (1)과 (2)를 참고하여, 오늘날 담화 관습을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자.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